

# 광야의 소리

여름호

2000년 제27호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계간 소식지

2000. 6. 25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QUARTERLY NEWSLETTER

## 목사관에서

### 성전건축을 그려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우리교회는 1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자체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우리가 마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고 싶을 때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스럽고도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선뜻 기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모두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땅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려보며 잠을 설친 날들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건물이란 물질만 가지고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물질만으로는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귀한 경험도 저의 첫 목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간구와 성성,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 귀



(송종남 목사)

한 일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우리모두가 약속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땅을 등록하는 일까지 마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땅 생활이지만 허리를 동여매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봉헌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지은 성전에서 새로 칠한 페인트냄새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뻐뻐' 라고 하면서 땅을 기증해 주신 성도님의 그 한마디가 제게도 같은 감격으로 와 닿습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일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사랑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사회에는 복음의 횃불을 높이 높이 쳐드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꿈꾸면서, 저는 오늘도 성전이 지어질 그 아름다운 땅을 돌아보고 싶어서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2000년'

# New Mexico Conference **다녀와서**



오영 권사

Santa Fe를 좀 지나서 있는 Glorietta Conference Center 에서 연회가 (5/24/00 5/27/00) 있었으나 송목 사담께서(5/23 5/30/00) Kansas City 에서 정회원 연수교육과 중복이 되어 우리교회에서는 연회대표로 나만 다녀왔다. 우리교회가 시작된지 올해 18주년이지만 연회대표로 전 Program을 참여하기는 처음이었다. 4 Districts(Albuquerque, Clovis, El Paso, and Odessa) 에서 950명이 넘는 모임이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빈틈없이 짜여진 Schedule에 의해서 진행되는 Program 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125주년을 맞는 이모임의 주제는(Theme) 우리의 모든후손들을 제자로 삼자 (Making Disciples of All Gods Children)였다. 우선 등록을 마치고 숙소가 결정된 후 오후3시까지 시간이 있어 9시반에 있는 Insurance Commision에 참여했었다. Medical Insurance 를 31%를 올리겠다는 것이고 목사님의 보험은 꼭 연회 보험에 가입하셔야 된다고 한다. 오후3시에 Opening Service 에는 Hutchinson, William 목사님 ( Director of NM Methodist Foundation)께서 막 12:28 34 , 시편 130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We are the ones We've been waiting For.) 라는 제목으로 1) 네 마음, 목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2)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멀지 않다 (You are not far from Kingdom of God)라 해주셨고 성찬식이 있었

는데 너무나 나 혼자 참석한 것이 아쉬웠다. 오후 4 시에는 Clergy 와 Lay Member들끼리의 모임이 있었고 Business Session 은 각부서의 변경사항들을 시정하고 Vote 로 승인받는 모임이었다.

둘째날에는 9시부터 Hospitality Room에서의 간식시간이 있어서 Albuquerque District 담당이었다. 우리교회에서는 과일을 내기로 해서 Ice Box에 넣어서 가지고 간 Cantalope 를 새벽 5시부터 껍질을 벗기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한 것 같은 착각도 느꼈다. 9 시반에는 Legislative Community라해서 5 group이 나누어 회합이 있었는데 Social Concern Group에 들어갔었는데 1) Homeless People 2) Mental Illness 3) Battered Women's Center 4) Crisis Child Center 등 여러기관을 위해서 도와줄 수있다는 모임이었다. 오후 2시에는 Retire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우리교회 처음시작했을때 도와 주신 Clyde Stanfield 목사님도 이번에 Retire하셨다. 처음에 우리교회가 집에서 돌아가며 예배보기 시작한 후 1982년 11 월초에 St. Stephane 교회에서 예배보게 해주신 목사님이시다. 11시에는 Memorial Service라해서 지난 일년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Memorial Service였다. 앞으로 우리교회에서도 준비되어야 할 Program 이다. 저녁 7시 반과 셋째날 설교는 Dr. Wlter Kimbrough (GA Atlanta) 에서 오신 목사님이 막 10:46-52, 요 3:14-21 에 나오는 말씀으로 장님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너의 길을 가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다.

셋째날 오후 1시반에 Albuquerque District 회의가 있었는데 현재 감리사님 Dr Terry Anderson이 사임하시고 알버커키 First UMC 로 부임하시게 되었고 First UMC(Carlsbad)에서 근무하시던 Mr. Joe Wood가 새 감리사로 임명되었다. 새 감리사님 취임식이 6월 18 일 St. Paul UMC에서 있을 예정이다.

Albuquerque District 회의가 있을때 4 Star Ward Program 이 있어서 선정기준은

- 1) 100 % 부담금을 빨리 내는교회
- 2) 교인 의 수효가 증가 한 교회
- 3) 주일학교 학생수가 증가한교회
- 4) 제자로 많이 만든교회

올해 일등으로 선정된 교회는 Aztec UMC 였고 St. Andrew UMC, Estancia, Zia, and Peralta UMC 등이 뽑혔다. 저녁 7시 30분에는 Ordinance Service라 해서 Decons & Elder 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다.

넷째날 10시 반에 있었던 예배에는 Dr Walter Kimbrough 목사님께서 막4:31-35 말씀과 요15:1-8의 말씀을 가지고 "Connection of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므로 연회를 끝냈다. 다음 연회는 2001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Eastern New Mexico University of Portales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연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 바라오며 이 글을 마친다.

**광야의 소리**  
 2000년 6월25일 통권 27호  
 발행인 : 송종남  
 편집인 : 송은순  
 발행처 : 공모부

**광야의 소리 원고 모집**

광야의 소리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간증, 시, 수필, 독후감, 열거 ...  
 어떤 글이든지 환영하며,  
 또한 좋은 의견도 접수합니다.  
 우리 교회의 홍보 부장인 박필서 집사님이나  
 독사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국에서 온 편지**

(이 글은 뉴멕시코로 유학을 왔다가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집사직분을 받고 영남대학교로 돌아간 전용배 집사님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송 목사님 내외분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알버커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가 그리 바쁜지 소식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시끄럽고 바쁠 때마다 그 곳 알버커키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소식이 제일 궁금합니다.

후배들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듣고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이 편지를 전해 주는 사람은 저와 아주 절친한 사람이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 친구한테 부탁하십시오. 일어서 잘할 것입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하구요.

이정로님 김장로님 또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회 식구들께도 안부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는 않지만 교회 건축헌금에 보탬이 되고 저희의 정성을 보냅니다. 한국에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해서 정말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저희의 기도이며, 성의입니다. 우리교회 건축에 저희가 전해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저희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 계십시오.

대구에서 전용배 집사 가족 올림

# 정든 알버키기를 떠나면서...

백광흠 집사

(이 글은 1년간 알버키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백광흠 집사님의 글입니다.)

알버키..

그 이름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파란, 청아한 하늘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몰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는 파아란 알버키의 하늘. 또 그 아래 맑은 공기. 수십 마일 떨어진 곳이 보이는 광활한 땅.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맑은 날이면 저는 기화를 놓칠새라 병원 마당에 그 동안 찍고 싶었던 책을 꺼내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연광만큼 아름답고 모든 색깔이 골고루 잘나오는 완벽한 조명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의 찍고 싶었던 사진이나 책의 부분에 표시를 해 두었다가 이렇게 맑은 날이면 슬라이드 필름에 옮겼습니다. 전문 사진사가 여러 전문 장비를 동원해 찍은 것 못지 않게 촬영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되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온 다음날 UNM병원에 출근하는데 너무도 파란 하늘 아래 병원의 모습을 보곤 당장 카메라를 꺼내 (저는 자료로 남기기 위해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출근하던 터라) 그 맑은 하늘 아래 병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또 그 맑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주일 내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 하늘을 보고 있자면 이곳이 다른 곳보다 우주에 더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여기에 도착했을 때 막막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번쩍듭니다. 그러나 도착할 때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하였던 "환영합니다"라는 조그만 카드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낫선 이곳을 정든 이곳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연수 와서 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많은 좋은 경험과 성취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제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귀한 것은 알버키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시던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함께 지낸 시간입니다.

그 동안 저와 제 가족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천 배를 갚아 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연수 중 저를 초청한 미국인 교수가 타지로 옮기는 바람에 가족과 헤어져 지낸 것이 아쉽고 또 그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어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여러분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쉬워만 하기보다 이런 좋은 시간과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지를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항상 저와 가족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올해에도, 이곳 알버키에서도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더욱 힘찬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우리의 조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저의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남선교회 주최 건강세미나 강사: 백광흠 집사)

# 교회소식 이모저모

## 부흥사경회

2월4일부터 6일까지 이은철 목사님(LA 언약감리교회)을 모시고 '예수안에 새롭게'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가졌다. 매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깨우쳐 주셨고, 토요일 오전에는 평신도들의 소그룹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을 깨우쳐 주었다. 이번 부흥성회에서는 작년에 오셨던 최선유 찬양 목사님이 또한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었다.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

## Love Tres Dias

LTD 33기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캘리포니아 빅베어 산장에서 열렸다. 우리교회에서는 김수영권사님, 정화강 권사님과 미국교회에 나가시는 홍정희 집사님이 Candidate으로, 또 안면순 집사님이 Team Member로 다녀왔는데 모두들 큰 은혜를 받고 돌아 오셔서 열심

히 신앙 생활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아무쪼록 빅베어 산장에서 활활타오르던 그 사랑의 불꽃이 알버커키 구석 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부활절 성극대회

우리교회에서는 200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각 속회별로 성극대회를 갖었다. 믿음, 소망, 사랑, 화평, 4개 속회에서 부활절 몇주 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성극을 준비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 연기로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각 속회별로 함께 모여서 연습할 시간도 충분치가 않았고, 또 누가 어떤 연기를 할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교실에 모여서 막을 올렸는데, '저분에게 저런 재능이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화평속에서는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극을 하였는데, 김용식 집사님께서 탕자역을, 박오서 권사님



(화평속 주제: 돌아온 탕자)

께서 아버지역을 하였다. 이 속회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집을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는 장면을 보여 줄 때에 김귀복, 정구창, 남자 권사님들께서 기생으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였는데, 탕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 대머리 기생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장면에서는 모두들 배꼽을 잡아야 했다. 저고리가 작아서 가슴이 보일 듯 말듯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엉덩이를 들이대며 '이만 하면 나도 쓸만하데이' 하면서 탕자를 유혹하는 정화강 권사님과 부산 사투리를 쓰는 송정옥 집사님의 기생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보았고, 화평속에서는 '인기상'을 탔는데, 부상으로는 '연극을 하는 그 열심 가지고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봉사하라' 명령을 받았다.

소망 속에서는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극을 하였는데, 이 속회에서 돋보인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선교 집사님의 연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습을 보면서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훌륭한 성극이었다. 고침을 받은 앓은뱅이의 손을 붙잡고 온 속도원들이 'Amazing Grace'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성극이었다. 이 속회에서는 박선교 집사님의 돋보이는 연기로, 연기상을 받았다.

믿음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연극으로 꾸몄는데, 이 속회의 특징은 연기를 하다가 자꾸만 대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장상순 집사님께서도 떨리는 굵은 목소리



(믿음속 주제: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

로 근사하게 연기를 잘하다가 갑자기 대사를 잊어버려서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웃었는데, 예수님 역할을 한 박완영 권사님도 또 대사를 잊어버리셔서 난감해 하시는 모습이 또한 일품이었다. (모두들 대사를 디베라 바다에 빠뜨리신 것일까?) 또한 사진에서 보는 한쪽 바지를 걸어 올리신 분이 김준호 장로님인데 베드로 역할을 아주 어색하고(?) 훌륭하게 소화하였다. 조애경 성도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막을 내렸고 이 속회에서는 '츄티상'을 받았다.

사랑 속에서는 믿음속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극을 꾸몄는데, 잘 짜여진 각본과 또한 상의 있는무대 장식이 돋보이는 성극이었다.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우리나라의 동요인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갈까요'를 부르면서 배에 오르는 장면에서는 깔끔한 워트가 돋보였고, 모두들 자



(소망속 주제: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

다른 분들의 연기는 앓은뱅이가 일어설 때까지는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앓은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강학봉 권사님(베드로 역)의 청천 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에서는 모든 관객을 사로잡았다. 구걸하던 손가락과 발톱을 요란하게 두들기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다'고 말하며, 뛰며, 찬양하는

신들의 이름을 새긴 모자를 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빨리 알아보시라고) 청바지를 맞추어 입고 열심히 고기를 잡던 사랑 속 속도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경화 장로님)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이옥주 권사님)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앞서지면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



(사랑속: 부활하신 예수님)

는 모습을 보면서, 이옥주 권사님이 이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었다. (두분은 부부이니까) 이 속회에서는 '각본상'을 받았다.

이날 우리교회를 방문한 홍정희 집사님께서 심사위원



(심사평을 하시는 목사님과 홍정희 집사님)

으로 수고하였는데, 심사평 또한 걸작이었다. '돼지가 하얀 구두를 신었다느니' 손티나께 대사를 잊어버린다

느니....' 상의 종류도 1등 2등 3등으로 하지 않고, 그 속회에 어울리게 상의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각 속회에서는 자기네가 받은 상이 제일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생각은 자유이니까, 글썽 어떤 상이 제일 좋은 상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이 제일 좋은 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 갈 것이라 믿는다.

## 야외 예배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교회 식구들이 야외예배를 다녀 왔다.

모두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태두리를 잠깐이라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나고 숨이 트이는 일이다.

새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지는 Oak Flats Picnic Area,



(김명배 LA 총영사와 함께)

작년에도 이곳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왔는데, 드라이브를 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오르면서 마치 처음 오는 길 인 것처럼 반겨주는 나무들이 새롭고, 공기가 새롭고, 하늘이 새로워 보였다.

미국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매 주일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던 여자 집사님들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와 주어서 가족과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싱그럽게 푸르른 나무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오랜만에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한 것들과 어울리는 넉넉한 시간을 가졌다.

마침 뉴멕시코주를 방문중인 김명배 LA총영사와 함께 오신 몇몇 손님들이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 후에는 어디에도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 우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훌륭한 요리, 푸짐한 음식솜씨로 만



(강상수원래?)

들어진 맛있는 점심식사를 서로 나누고, 이제 드디어 우리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게임이 이어졌다.

밀가루에 숨겨진 캔디를 찾느라고 밀가루 범벅이 되어진 얼굴로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리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새하얀 얼굴, 서로 의자를 차지하려고 의자를 손으로 짚어 가면서 노력을 했어도 1등은 차지하지 못한 김장로님, 결국에는 한의 자를 사이에두고 엉덩이로 밀어

내서 우승을 하고야마는 김정란 집사님, 물이 든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던져서 우승을 하신 김귀복 권사님, 이옥주 권사님팀, 줄다리기 시합을 공정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심판이 되셔야만 Mr.Parker,.....아이구 아이구 ... 그런데 왜 이렇게 옆구리가 결리고, 어깨가 부서지는 듯이 아픈가, 했더니 이모든 것이 열심히 줄을 당기느라 애를 쓴 덕분인가 보다.



(줄다리기 시합)

아마 오늘 밤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구 옆구리아, 아이구 팔이야, 하면서 돌아누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열심히 겨루었으니까...

그러나 참으로 도시 한복판을 벗어나서, 나무의 숨소리를 듣고, 바람의 손길을 느끼며, 마음껏 뛰고 환호하고 웃는 시간을 갖으면서 하나님의 숨씨와,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

나무와 바람과 꽃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늘 그렇게 제자리에 있는데 우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것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듯이 우리 주님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번덕스러움 때문에 그 주님을 늘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쉽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날로 푸르러 가는 6월의 신복을 늘 가득, 가슴 가득 담아 가지고 산을 내려 왔다.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 우리들이 다시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알버커키를 향해 자동차 페달을 신나게 밟았다.

## 여선교회 소식

3월 19일에는 여선교회 연례 행사의 하나인 비빔밥 세 일을 하였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푸짐하게 차린 비빔밥이 6.25후에 제일 맛있는 비빔밥 이었습니다. 이날 수익금 전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고무 풍선 던지기)

## 교회학교 소식

\* 2월 19일에는 Sandia Mountain으로 11명의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Ski Trip를 다녀 왔다. 특히 스키 강사로는 수년간 제자들을 길러낸(?) 최귀분 성도님이 해주셨고, 맛있는 점심은 장상순 집사님께서 제공 해주셨다. 그런데 조영애 선생님과 또한명의 동행자(?)는 눈은 밟아 보지도 않고, 입운동안 실컷하다가 내려왔다고... 그래도 오랜만에 샌디아 산위에서 알버커키를 내려다 보는 그 시원함이란...



\*5월 6일에는 Bowling Activity를 가지면서 학생들간의 친교를 가졌고

\*5월 8일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께 감사카드를 정성껏 써서 부모님들께 전해 드렸다. 또한 어머니들의 가슴에 손수 만든 빨간 카야네이션을 달아 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상순 남선교회 회장님이 60세이상 되신 어머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마련하여서 전해 드렸다.

# 교회 행정 부서

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2000천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임명되신 우리 교회 각 부  
부장들을 소개합니다.

## 인사공천위원회



(위원장: 송종남 목사)

공천위원회는 교회의 각 부서에서 일할 인재를 찾아  
공헌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양  
회를 마련하여 임원을 훈련하고, 임명된 일꾼들이 훌륭  
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도 합니다.

## 임원회



(회장: 김준호 장로)

임원회는 개체 교회의 모든 행정과 프로그램을 감독하  
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입니다. 임원회는 복회  
및 선교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프로그램을 만들며 이를 집행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교  
인들의 상황을 점검하며 교인 증가를 위한 계획을 검

## 목회협조위원회



(위원장: 강학봉 권사)

목회협조위원회는 목회자를 돕기위해 조직된 부서입니  
다. 이 부서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의 생활, 주택, 건강, 연금 문제에 이르기  
까지 목회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목회자가  
전념하여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감리교회의 파송제도를 비롯하여 목회자의 역할등  
에 대하여 교우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이임, 부임의 일과 관련하여 지방  
감리사와 협의하며 감독의 자문을 응하는 일입니다.

##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육주 권사)

재정위원회는 매년 교회예산안을 작성하고 임원회가  
채택한 수입예산 계획을 세우며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교회재정을 관리, 교회회계와 재무서기의 일을 시도 감  
독하며 교회 재무담당 임원들의 회계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인총회나 임원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임원회

및 구역회에 매년 총괄적인 재정보고도 합니다.

## 재단이사회



(이사장: 이경화 장로)

재단 이사회는 교회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관리 감독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의 매매, 담보, 저당, 수리, 개수 내지 증축하는 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교회에 기증된 유증, 기부금, 유산 및 위탁금을 인수 또는 거절하며, 모든 신탁 기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며 목사관의 관리도 담당합니다.

## 예배영성부



(부장: 박완영 권사)

예배영성부는 예배의 목적과 의미에 관하여 교우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는 부서입니다. 목사님과 협조하여 예배순서, 예배위원(헌금위원, 안내위원, 기도순서자, 성경봉독자, 찬송전화위원 등) 음악, 성전장식, 성례준비 등을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 선교봉사부



(부장: 박성희 집사)

선교봉사부는 교우들에게 국내외 선교와 봉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교육하여 선교와 봉사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수 있도록 사업과 프로그램등, 예로 지역전도, 대외경조등의 교회 안팎 구체사업과 사회 봉사활동의 책임을 맡아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 관리부



(부장: 장상순 집사)

관리부는 교회 관리의 전반적인 일들을 재단이사회와 상의하여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교회와 사택의 시설 및 보수, 또한 교회의 소모품들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교회 비품은 잘 정돈, 관리되고 있는가를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 새신자부



(부장: 김수영 권사)

새신자부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해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가족을 환영하는 절차를 개발, 실천하며 새 가족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이 자신의 은사와 관심을 따라 교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도 합니다. 새가족 환영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도 새가족부입니다.

## 공보부



(부장: 박필서 집사)

공보부는 대내외적인 교회 홍보 및 인터넷 선교, 설교 테이프, 주보 및 교회 뉴스레터인 '광야의 소리'등 모든 교회 인쇄물을 발행 및 발송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편찬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습니다. 특히 교회의 특별행사(부흥회, 창립기념일, 총동원 주일 등)를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 우리교회 새신자부를 소개 합니다

새신자 부장 김수영권사

먼저 우리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새신자부가 생긴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저에게 새신자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교회를 부흥 발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교회의 새신자부는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일을 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목사님의 인도와 여러 부원들의 협조로 새신자들이 우리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새신자부의 작은 계획들을 소개하면

\*새신자들을 우리교회의 새식구로 모시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천교실에 있는 새신자 자리까지 안내하고, 서먹 서먹한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도록 새신자부원이 옆에서 함께 천교를 나눕니다.

\*새신자에게는 Welcome Card카드를 그 주간에 반드시 보내도록 한다.

\*또한 주중에 한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권장한다.

\*또한 빨리 속회에 편입시켜서 우리교회의 소그룹활동에 참여하므로 주님 안의 한식구임을 느끼게 해준다.

\*목사님과 함께 심방을 하여서 우리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다.

\*새신자 환영회를 마련하여서 우리교회의 새 식구가 된 것을 온 교우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제 처음 내딛는 걸음이라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교회에 새신자부를 있게 해 주신 주님의 도우심이 꼭 있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새신자부에서는 새신자들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